

야마기시즈의 행복 촌
산인마을



이곳 산안마을은 모든 것이 전부 갖춰진 크고 넓은 도시에 비하면 잔잔하게 느껴지는 평범한 시골 마을 풍경으로 다가왔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상낙원은 크고 화려한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맞춰지고 있지만, 진실한 지상낙원의 의미는 그렇게 짧게 국한되는 뜻이 아닐 것이다.

크고 화려한 나라는 소유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한다. 결국 소유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은 것이다. 그 아래에서 자기 것을 잃을까봐 뺏고 싸우는 일은 늘 있다.

그러나 이곳 ‘행복촌 산안마을’로 깊이 들어오다 보면 소유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삶, 담이 없는 삶, 서로 존중하는 삶, 돈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실현되는 천국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 가족

자타일체의 삶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마을은 참새가 다녀간 발자국처럼 훈훈하게 보였고 사람들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했다.

대신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어머니의 품처럼 고향을 찾은 느낌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돈이 필요 없는 사이좋은 마을’이라는 큰 팻말이 서있다.

바로 이 곳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아마기시즘 공동체 마을이다.

일체사회 지향을 목표로 두고 있는 아마기시즘 공동체 산안마을, 이처럼 산안마을은 모든 사물을 일체로 보고 있다. 즉 너와 나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행복한 이념을 함께 하고자 모여드는 수많은 회원들과 아마기시즘 공동체 사람들은 일년에 세 번꼴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 서로 회의한다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연찬회의라고도 한다. 주로 연찬회를 통해 사람들은 이상세계와 인간성 회복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호칭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한다.

아마기시즘 공동체에 대해 묻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틀린 점은 여덟 가구가 한꺼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점이죠.”

쉽게 생각하면 된다.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과도 같은 것이다. 가정에서의 엄마 역할, 사회생활을 하는 아빠 역할, 자식의 역할이 다 따로 있듯이 지금 아마기시즘 공동체 생활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만사 오케이다.

자연과 인위, 즉 천지인의 조화를 도모하며 풍부한 물자와 건강과 친애의 정으로 가득찬, 안정되고 쾌적한 사회를 인류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마을을 설명하고 있다.

자타일체의 삶을 실천하는 마을 사람들은 늘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제까지 쓴 세월 단 세월을 함께할 수 있었다.





아마기시즘 공동체 일반 회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감자를 캐고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일하기 때문이다.

이상사회를 품다

무소유 공용일체운동인 아마기시즘 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난에 시달리던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제창자라 할 수 있는 아마기시 미요조(1901 ~ 1961)라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사람들에게 이

끌려 나오게 되고, 그에 공명하는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마기시에게 절묘한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50년 태풍 '젠' 때문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벼농사의 막대한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한쪽 논에서만 벼가 쓰러지지 않고 곳곳이 서 있는 것을 봐다 기이치라는 농업 보급원이 발견했다고 한다. 그 농업 보급원은 벼의 주인이 아마기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기시는 양계장에서 펼쳐지는 작은 닭 사회, 닭이 만들어 낸 질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양계법을 터득하게 된다. 양계장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닭의 사회를 보며 깨달은 바가 컸던 것이다.

아마기시는 양계를 통해 벼농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의 성과가 벼농사에서 나타났다. 훌륭한 결과물을 가져다준 것이다.

결국 아마기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닭을 통해 진실한 사회를 본 것이 아닐까 싶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농업 성과를 듣기 위해 찾아온 이들을 위해 강연

함께 일하는 사람들

행복 촌 산안마을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가정에서의 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생활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은 특히 더 알아주는 부지런한 농사꾼이다. 마을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다음과 같다. 양계장에서 닭 키우는 일과 채소 키우는 일인데 사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키운다는 생각보다 닭과 함께,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는다.

아마기시즘 양계법의 핵심은 동물을 억지로 키우지 않고 자유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들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줌은 물론이고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동물들 스스로 코드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암탉들이 낳아준 고급 유정란은 서울, 경기, 대구, 전주 등 전국 각지로 배달된다.

그리고 양계부/ 공급부/ 생활부/ 학육부/ 채소부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쳐 직장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식당, 미용, 육아, 사진, 보건위생 등 각자 맡은 바가 따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강제나 규율 같은 법은 없다.

회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야마기시는 청소년 시절부터 일관되게 진리를 탐구·실천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을 구상하고 실천했다.

우리나라에서 야마기시 사상을 처음 받아들이고 뿌리를 묻게 된 곳이 행복 촌 산안마을이다

마을의 촌장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성렬(62) 씨. 윤씨의 부친 윤세식(타계)이 1965년 일본 가스야마 세계중앙실에서 연수를 받은 것이 한국에 야마기시즘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윤성렬 씨는 아버지와 달리 야마기시즘에 대해 관심을 두고 보진 않았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 길로 들어서고자 유학까지 꿈꾸는 열혈 청년이었으나, 아버지의 삶을 통해 느낀 바가 커서 이상사회의 뜻을 품고 이 길로 들어선 것이다.

윤성렬 씨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와 자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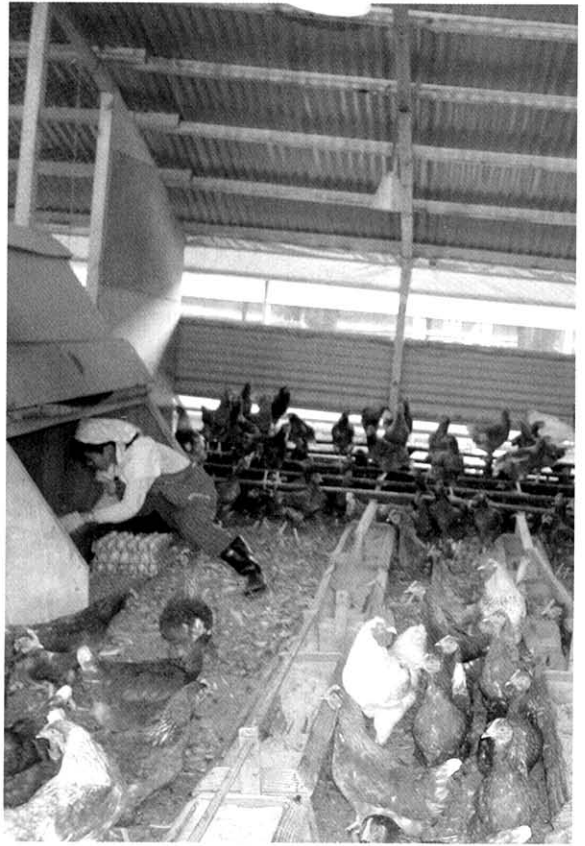
“저 소나무와 우리들은 같이 호흡을 하고 있지요. 나의 폐에서 나온 공기가 저 소나무의 숨구멍으로 들어간 건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저 닭이 내신 숨이 나의 폐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결국 ‘너와 나는 모두 같다’ 라는 의미이다.

자연계에서나 인간사회에서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은 연속, 이어짐이다.’ 이것이 야마기시즘 자연관의 근본태도라고 한다. 이처럼 야마기시 가족들은 자연의 순환관계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다.

자연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였다. 앞으로 평생 이 곳 행복 촌을 떠나지 않고 삶을 유지할거냐는 재미없는 질문을 하자, 윤성렬 씨는 다소 긴장된 말투로 대답한다.

“아닌데요…… 결국 저도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양계장에서 마을 사람이 닭과 대화를 하며 유정란을 골라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농가에서는 자주 듣는 얘기로, 소나 돼지 등에게 <기르는 사람의 성격이 옳는다>라는 말이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야마기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양계장의 닭들은 늘 온화하고 행복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소유라는 억지스러운 제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실체가 있는 행복을 진실로 느끼고 있는 건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 리 태

1978년 서울 출생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굴뚝에서 나온 무지개' 로 등단
산문, 동화집 <엄마뚝으로 돌아간 동심> 발표